



조선강선

7

주체 107(2018)
루체 제347호 월간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



자력자강의 위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파업관철을 위하여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차 례

새로운 로선을 제시 ······	3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	5

- 위대한 영장을 모시여 -

전승의 광장을 마련해주시여 ······	7
-----------------------	---

일화

사랑이 낳은 승리 ······	9
최남만도시 광주가 전하는 이야기 ······	10
전시에 열린 전람회 ······	11
승리의 레일을 내다보시고 ······	11

사진

조국의 촌도를 피로써 지켜 ······	12
후방도 전선이였다 ······	14
전호가의 락천가들 ······	16
남강마을녀성들 ······	16



12

수기

맞서보니 그들은 강자가 아니였다 ······	17
--------------------------	----

사진

평양시의 일부 ······	18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두만강을 건너 ······	20
----------------	----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	22
-------------------	----

- 공화국의 70년 -

통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여 ······	23
-------------------------	----

새형의 변압기생산성과 확대 ······	24
-----------------------	----

영애개발에 보를 봐고 ······	26
--------------------	----



27



28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 삼료리 · · · · · 36

고향소식

장선강기술의 새 모습 · · · · · 38

조국의 품에 안겨

기상학 발전을 위해 · · · · · 40

편지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 · · · · 42

인상기

고향집 뜨락은 넓지 않아도 · · · · · 43

잊지 못할 무대 · · · · · 43

고국방문

경모의 마음 굽이치는 곳에서 · · · · · 44

북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 · · · · 46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 (1) · · · · · 47

야화

망경산 · · · · · 48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8) · · · · · 49

민족의 향기

부채에 비낀 민족정서 · · · · · 50

사화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 · · · · 51

조국의 천연기념물 (18) · · · · · 52

력사인물

구주성전투와 박서 · · · · · 54

부정할수 없는 성노예 범죄 · · · · · 55

상식

조선의 계수 조사부 · · · · · 4

늦잠과 건강 · · · · · 35

집현전 · · · · · 41

조선 속담 (자고자대) · · · · · 54

유모아

불건의 값 · · · · · 55

새로운 로선을 제시

주체107(2018)년 4월 조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전원회의 소식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승리자의 궁지와 자부심,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한껏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이번 전원회의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조국의 전진을 더더욱 빨라지게 하는데서 전환적 리정표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조국인민들은 지금까지 병진로선을 추켜들고 투쟁하여 왔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이 전략적로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사적인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시였다.

병진로선이 선포된 때로부터 지난 5년동안 조국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충격적인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다고 하는 방대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기적이 창조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류경치파병원, 문수기능회복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려명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던 가슴벅찬 화폭을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기간에 조국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병진로선이 밝힌 혁사적파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조국인민들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후손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병진로선의 이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조국에서는 경제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혁사적시기의 요구로부터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여 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전략적로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가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세운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領導밑에 온 나라에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그 본보기공장들이 날을 따라 늘어났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옹변으로 보여준 공장, 기업소들은 해아릴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파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특히 과학교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번에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통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예지와 결단, 특출한 령도실력이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었다.

또한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 일편단심 조선로동당만을 따르는 인민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를内外에 힘있게 선언하였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절대적진리로 확신하며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앞길은 창창하며 우리 조국은 반드시 세계의 령마루에 거연히 솟아 찬연히 빛을 뿐릴것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김성일

상식

조선의 국수 소나무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이다.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간 우리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되어왔다.

예로부터 이 땅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가 많이 자라 우리 인민은 그것을 자연풍경의 전형처럼 인식하였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자연풍경을 그려도 소나무를 그리는것을 즐겨하였다. 통산리1호, 4호무덤벽화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고구려시기에도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꾱꼿이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그리였다.

세나라시기 이름난 화가 솔거가 소나무를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냈던지 새들도 그림속의 소나무를 실물로 알고 날아들다가 떨어졌다 는 설화까지 전해오고있으며 『해동여사』에서는 말해사람 대간지가 소나무풍경을 잘 그렸다고 하였다.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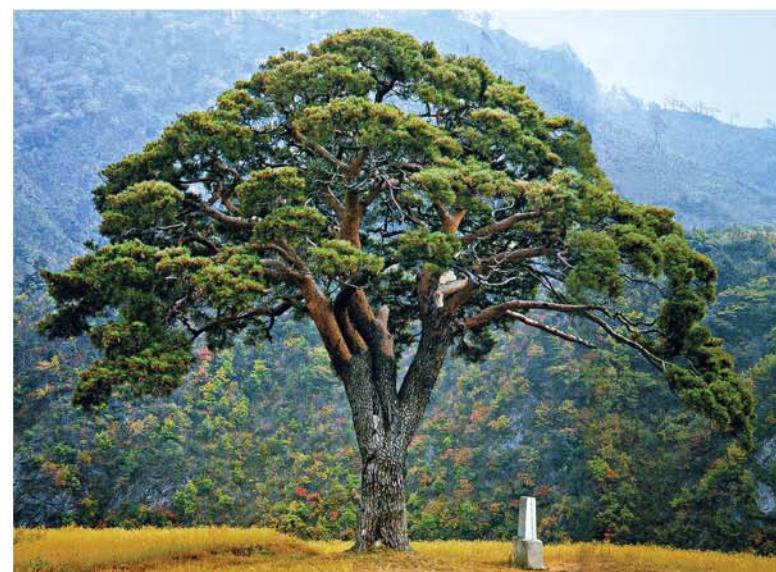
나무숲은 산수풍경의 기본묘사대상으로 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소나무의 모습에 장중하면서도 억세고 고결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며 굳세면서도 열정적이라는 뜻과 정서를 담았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타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하시려는 굳은 맹세를 눈속에 묻혀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억세게 서있는 소나무에 담아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짓으셨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소나무를 많이 심어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숲이 설레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혁명가는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철창속에서 일생을 마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본사기자 김솔미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6년이 되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자주통일사상과 애국애족의지의 고귀한 결실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초 겨례의 절절한 통일념원과 격변하는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内外에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명실공히 자주의 한길을 따라 출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주체89(2000)년 6월에 마련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핵으로 하는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그로부터 7년후 10. 4선언이 채택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겨례의 투쟁에서 이루된 또 하나의 빛나는 성과이다.

통일의 새시대, 6. 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따라 북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례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다.

6. 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얼마든지 이루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었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는 극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례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전환이 일어

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지난 4월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어 온 민족을 기쁘게 해주었다.

긴긴세월 분별파 교통, 대결파 적대의 상징인 판문점은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분별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해동하였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례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판문점분리선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신 북남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약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으로 나가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파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사이의 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분별파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전승의 광장을 마련해주시여

력을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시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과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북남관계의 새로운 혁신을 슬기롭게 개척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4월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혁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북남수뇌분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은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렬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혁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시였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을 선언하였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수뇌분들의 혁사적인 상봉과 회담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의지의 발현으로 마련된 민족적사변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사상과 방침, 로선의 자랑찬 승리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하게 투쟁해온 우리 민족의 굳센 의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은 세계정치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있다.

하기에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고 있으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5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29일만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 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또다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전번 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루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사상과 유훈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領導가 있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에 이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전룡진

오늘 조국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24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인민은 한없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시여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

7월 27일이 바로 그 혁사적인 전승의 날이다.

당시 조선의 하늘가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를 때 대양건너 미국은 패전의 치욕으로 눈물에 잠겨있었다. 정전협정조인후 마이크앞에 나타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구슬픈 어조로 《대가는 컸다. 이것은 비극적인 것이었고 쓰라린 것이다.》라고 토설하였다.

당시 미국의 출판물들은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여 슬픔에 잠겨있다.》고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은 미국을 슬프게 한 조선전쟁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였다. 그때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는 한 서방군사평론가의 글이 실렸다.

《월가의 상인들이 애초에 북조선을 우습게 여긴것부터가 돌아킬수 없는 오류였다. 그들이 약자인가? 아니다. 전쟁행

정이 보여주다싶이 그들은 무장 장비는 렬세했어도 특이한 전략과 전술, 변화무쌍한 전법에 의

거하여 싸우는 강자였다. 미국의 장군들이 때늦게나마 저들이 상대한 군통수 김일성장군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격전의 능수라는 점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했다.》

바로 그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령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하지만 전승광장에 들어서기까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준엄한 3년간의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새 생활창조로 들끓던 공화국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때는 조국이 일제의 군사적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섯 해가 채 안되던 시기였다. 공화국과 정규군의 혁신도 짧았고 무기도 부족하였으며 경제적 잠재력도 미약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174년의 혁사와 110여 차례의 침략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선에 최신장비로 무장한 200여만명의 병력을 들이밀었다. 수많은 침략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을 쌓았다는 미국의 정예사단들이 조

선전쟁에 투입되었고 《명성》을 망쳤다는 장군들도 조선에 파견되었다.

조선전쟁은 말그대로 보병총과 원자탄파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침략자들은 《승리는 시간문제》라고,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전쟁시작부터 여지없이 깨여져나갔으며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기적들이 련이에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지 열흘후인 1950년 7월 오산에서 인민군대와 미제침략군사이에 벌어진 첫 전투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미군이 나타나기만 해도 북조선군은 출행랑을 놓을것》이라고 으시대며 덤벼들었던 스미스특공대는 인민군대의 드세찬 공격앞에 완전파멸되고 말았다.

오산전투에 이어 조선인민군은 련속타격으로 공화국남반부의 여러 지역들을 해방하고 남진을 계속함으로써 적들에게 방어를 준비할 시간적여유마저 주지 않고 련속 패배를 안기였다.

인류전쟁사를 돌이켜보면 침략자들의 전면적인 불의의 침공앞에서는 아무리 강대한 군대와 막강한 경제적인 잠재력

을 가진 나라라고 하여도 혼란에 빠져 전선을 수습하지 못하고 멸망하였거나 일정한 시련을 겪으며 힘을 마련한 다음 반공격으로 넘어간것이 일반적이었다.

전쟁 초기에 벌써 조성된 정치군사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적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적인 반공격과 련속적인 타격, 신속한 우회기동과 포위소멸, 산악전과 야간전, 대소부대배합전, 높은 기동, 군종, 병종들간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중요한 전법으로 규정하시고 뛰여난 령군술로 모든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안과 전법들은 현대포위전의 모범으로 기록된 대전해방작전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주체39(1950)년 7월 위험을 무릅쓰시고 한밤중에 림진강철다리를 건너 서울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당면하여 대전에 집결된 적들을 포위소멸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것은 대전지구와 린접해 있는 괴뢰군부대들이 미제24보병사단을 지원하지 못하게 멀리 밀어내고 견제하는 한편 인민군부대들이 대전북쪽과 서북쪽 그리고 익측에서 적들을 압축타격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이와 동시에 대전동남쪽에 진출하여 포위를 진행해야 할 련합

부대가 적들의 집요한 저항으로 지체되는 경우 론산계선에 진출한 부대들의 일부 력량을 대전동남쪽으로 신속히 우회기동시켜 적의 퇴로와 중원부대의 진격로를 차단함으로써 대전의 적들을 빠른 시간안에 완전히 포위소멸하는것이였다.

그이의 작전전술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대전해방작전에서 미제24보병사단은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사단장은 사병웃을 갈아입고 도망치다가 포로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화까지 남기였다.

하여 한달 남짓한 기간에 인민군대는 남반부지역의 90% 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전파를 거두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과 수안보, 광주와 1211고지를 비롯한 불비쏟아지는 최전선들을 찾으시여 지휘관들에게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싸움도 조선식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형조건에 맞는 전법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사지휘관들이 작전, 전투조직과 지휘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하여 적을 정면으로 강력히 타격할뿐아니라 적을 도처에서 포위소멸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이께서 창조하신 쟁도전법, 비행기사냥군조활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이동포병중

대활동, 습격조활동 등도 적을 부단히 소멸약화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전법들이였다.

독창적인 주체전법으로 적들을 경악케 한 인민군대의 주동적이고도 영활한 전투행동에 미제는 가는 곳마다에서 비명을 질렀다.

저격수조활동과 야간습격전에 혼뜨겁이 난 미군은 『낮에는 인민군대의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들고 밤에는 또 벼락같이 죽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인민군습격조때문에 움짝달싹 할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주체적인 포병전법에 혼쭐이 난 적들은 『인민군대의 포탄에는 눈이 달렸다.』, 『인민군대에 웬 포가 저렇게 많은가.』라고 하며 공포에 떨었다.

사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적용한 모든 전략과 전술, 작전들은 서방세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수많은 『책략가』들과 『장군』들이 달라붙어 작성한것들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들은 그이의 군사전략과 전술, 전법앞에서 물거품이 되였고 세계적인 『명장』으로 자처하던 맥아더, 렛지웨이, 클라크 등이 과직되였으며 조국의 산과 골짜기들이 침략자들을 무섭게 징벌하는 상심령, 함정꼴로 되였다.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제침략군의 중순양함을 바다속에 수장시켜버린 주문진해전의 승리, 『하늘의 요새』라고 뽑내던 전략폭

◊ 일화 ◊

사랑이 낳은 승리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승리인 동시에 그이의 사랑이 낳은 승리이기도 하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후에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솜옷도 보내주시고 전화의 나날에 화선휴양소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한 전사의 가족을 위해 구출작전을 조직해주시는것과 같은 수많은 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시였다.

주체40(1951)년 9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11고지전사들의 생활을 깊이 염려하시여 부대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원들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투원들에게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도록

하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남새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콩을 보내주시여 그것으로 콩나물을 길러 먹이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하여 고지의 쟁도에서는 싱싱한 콩나물이 자라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전사들의 식생활에 리용되게 되였다.

고지의 전호가에서 수령님의 사랑이 깃든 콩나물국을 받아안으며 전사들은 자기들을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랑에 목이 매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다 바쳐갈 맹세를 다지였다. 하기에 전사들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도 막았고 수류탄을 안고 적진속에 뛰여들어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는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고지를 사수하였으며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격기 『B-29』가 1주일사이에 20대나 땅파 바다에 쳐박힌 사

실, 1211고지와 월미도, 청진과 함흥일대를 비롯한 격전장들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이 낳은 결정체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그이께서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에서 주체적인 전법을 구상하시며 지

새우신 밤은 그 얼마나 블비쏟아지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으시여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

겨주시면서 헤쳐가신 전선길은 몇천리인지 모른다.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최전선길을 이어가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이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였다.

막다른 궁지에 빠진 미제는 마침내 항복서나 같은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에서는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승리자들의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광장의 높은 연단에 올라 군대와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를 우러르는 군대와 인민의 얼굴마다에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로 오늘의 전승광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흠토의 마음이 비껴있었다.

그리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신념과 확신이 어리여있었다.

본사기자 변진혁

최남관도시 광주가 전하는 이야기

세상에는 한다하는 군사령관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지만 최고사령관이 직접 최전방의 해방 지역에까지 나가 군인들과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킨 데는 아직 없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난 후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전선이 이미 락동강계선에 이르자 불비속을 뚫고 서울에 나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남해안방어부대에 나가보실 생각을 무르익히시였다.

당시 대구-부산일대에 압축된 적들은 락동강계선에서 어떻게 하나 인민군대의 공격을 저지시켜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직은 누구도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던 서남해안방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였다.

그런데 광주에 지휘부를 둔 해안방어부대는 조직되지 얼마 안되었고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해야 할 해방지역의 일군들은 갓 임명되어 아직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고 있었다.

조국의 남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광주는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적들이 몰려있던 남동부의 대구보다도 썩 아래에 놓여있다. 적폐잔병들과 반동들의 준동이 그 어디보다도 우심했던 광주는 해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위험한 곳이였다.

전쟁이 시작된지 한달 남짓한 사이에 세번째로 서울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 서남해안방어대책을 세우고 해방지역의 당, 정권기관사업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위험한 광주에로의 최전선길을 떠나시였다.

그날은 주체39(1950)년 8월 10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야전승용차는 충주계선에서 적비행기의 기총사격을 피해 대피하게 되었다. 이때 그이의 귀뿌리를 스치며 지나간 파편이 나무가지를 몽청 잘라버리였다. 적비행기들이 사라지자 수행성원들은 그이께 이제 더는 이런 위험한 길을 다니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동무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시며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전선에 나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고무해주면 그만큼 전쟁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게 된다고 교시하시며 또 길을 떠나보자고 재촉하시였다.

일행이 이런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기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수안보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였다.

잠시의 휴식도 없이 공화국남반부를 완전해방하기 위한 최종임무를 하달하신 그이께서는 하루 밤만이라도 쉬시였으면 하는 전선사령부 일군들의 간절한 청도 물리치시고 그밤으로 또다시 차를 달리시여 새날이 시작될무렵 대전시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충청북도안의 일군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고 적들의 새로운 공격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해 이르시고 구체적인 파업을 주시였다.

대전시를 떠나신 그이께서는 론산을 거쳐 이른새벽에 전라북도 전주를 지나 새벽에 전라남도 광주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서남해안방어부대 지휘부를 돌아보시면서 당면한 군사작전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고 전라남도당위원회를 찾으시여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서와 하루빨리 당단체들을 복구정비하며 당안에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당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그리고 남반부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썩 후날 남조선의 한 도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주일대에 나오시여 사업하신 내용이 게재되어 사람들을 깜짝 놀래운적이 있었다.

이렇듯 남조선의 출판물까지도 흡모의 정을 안고 서술한 위대한 수령님의 광주일대에 대한 현지시찰과 더불어 전쟁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러해

전시에 열린 전람회

주체40(1951)년 10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전지리(당시)의 토벽집에서는 경공업전람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전람회장을 찾으시였다.

직물전시장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신발전시장에 가시여서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서와 특히 어린이들의 신발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일용잡화전시장에 진렬된 꽉

성냥을 보시고도 그리고 학용품 전시장에서 연필 한자루를 보시고도 생산을 많이 하여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 화장품전시장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시에 어울리지 않게 화장품 까지 진렬해놓은데 대하여 그 닥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이 지금 비록 웃은 허술하게 입고 짐은 반토굴집에서 살지만 실상은 문명한 인민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전시장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경공업과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전시 인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가족들에게 식량공급량을 늘일데 대한 내각결정, 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식량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1952년도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 등을 면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전국적으로 전반적무상치료제 실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련이어 시행되었다.

이렇듯 그이의 극진한 보살펴심속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여있었고 인민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본사기자

승리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참으로 가렬하였다. 당시 조선인민은 전쟁에 대해서만 생각하였고 모든것을 그 승리를 위하여 바치였다.

세계인민들도 조선전쟁에 초점을 모으며 청소한 조선의 운명을 우려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학생출신의 군인들을 소환하여 교육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류학생출신의 군인들도 해당 나라에 다시 보낼데 대한 혁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많은 군인들이 다시 대학으로 가고 외국으로 류학가는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때 소환되는 군인들은 저저마다 전투장을 뜨지 않으려고 하였다.

류학생출신군인들 역시 그러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침략자들을 때려부신 다음 다시 류학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을 드리였다.

류학생군인들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을 공부시키면서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선진과학기술을 많이 배워올데 대한임무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재더미로

된 도시와 농촌을 볼 때마다 침략자들이 하나를 마스면 열, 백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군 한다, 그리자면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때이지만 동무들을 계속 공부시키자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전쟁승리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조국의 촌도를 피로써 지켜



조국해방전쟁시
기 땅크사양군조운
동, 비행기사양군조
활동 등 수많은 독
창적인 전법들이 창
조되었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중순양함 《볼리
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킴으로써 세계해전사에 없
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운반하고 있는 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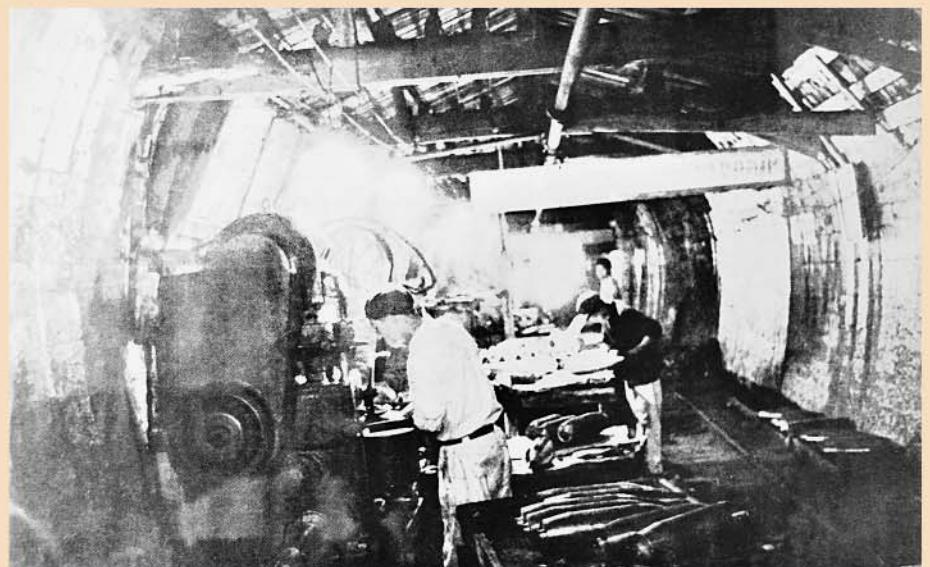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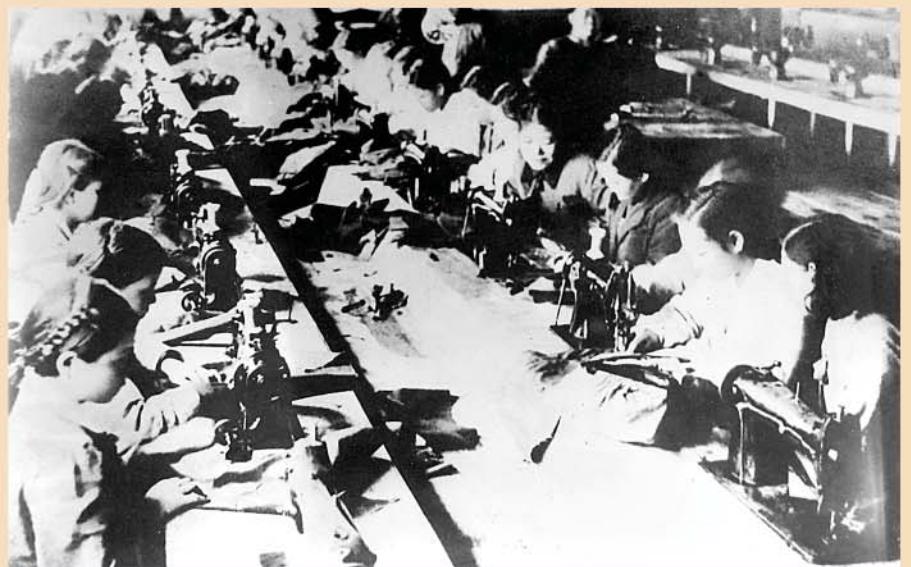
후방도 전선이였다

농민들은 전화의 엄혹한 시
련속에서도 한치의 땅도 둑이
지 않았다.



고향땅을 지켜가고 있는 자위대원들

전시생산에 떨쳐나섰다.



전호가의 락천가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장병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였다.

포연서린 전화의 나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축구경기까지 진행하면서 보다 활기있게 싸움도 하고 생활도 꾸려온 인민군용사들은 적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고지에 성한 나무 한그루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고지우에서 화선악기를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였다.

1211고지의 방위자들을 비롯한 인민군용사들은 고지에서 악기재료도 제작도구도 경험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집단의 힘과

지혜를 모아 포탄파편으로 손칼과 대폐날, 끌을 만들고 타다남은 나무와 전선줄을 가공하여 훌륭한 악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악기에는 가야금, 단소, 통소, 해금 등 민족악기들과 바이올린, 첼로 등 없는것이 없었다. 생활을 사랑하고 미래를 락관하는 용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 화선악기소리와 병사들의 노래소리는 적들에게 대포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주체41(1952)년 2월 조선인민군 각 련합부대들의 예술공연대회때 전선부대들에서 제작한 화선악기들이 무대를 흥겹게 들었다놓았으며 주체42(1953)년

5월 제6차 군무자종합예술경연대회에서는 전선동부의 1211고지방위자들이 제 손으로 만든 화선악기를 리용하여 펼쳤던 노래와 춤 《우리 중대오락회》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쟁승리의 래일을 락관하며 락천적으로 생활한 인민군용사들에 의하여 세계전쟁력사상 그류례를 찾아볼수 있는 조선의 화선악기가 태여나 전선의 어디가나 신심과 락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은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조국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오르게 되였다.

본사기자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대, 20대에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로병들도 어느덧 80, 90나이에 이르렀다.

17살에 전쟁에 참가했던 나도 85살의 로인이 되였다.

하지만 눈만 감으면 피와 청춘을 바치며 조국을 보위하던 날들이 생생히 떠오르군 한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조국땅 위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오만한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먹어치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신속히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의 대병력이 증강되기 전에 높은 기동력과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깊은 기간안에 격멸소탕하고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며 우리의 무력을 전국각지에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의 증원부대

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할데 대한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근위 제6보병사단 포병련대 1대대 1중대에서 복무하였던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남으로 진격하며 송악산과 개성해방전투, 인천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였다.

조선남해와 거제도가 바라보이는 경상남도 진해까지 밀고나가 남해가에서 손파 발을 씻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우리는 함안에 있던 사단지휘부가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야반산일대에서 적들과 싸움을 하고있던 우리는 통신병, 무전수 등 7명의 성원들로 야간격조를 무었다.

밤 10시에 떠난 습격조가 미군대 천막에 도착한것은 다음 날 새벽 1시경이였다.

미군천막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7명에게 임무가 분담되었다. 나에게도 3개의 천막안에 있는 적들을 소멸하는데 대한 임무가 하달되었다.

나는 천막가까이로 살금살금 기여갔다. 그리고는 습격개시신호와 함께 힘껏 수류탄을 던졌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천막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하였다. 나는 련속 천막들에 수류탄을 던졌다.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기여나오는 적들을 향해 기판단총사격을 가했다.

그속에서도 살려달라고 두손을 벼락 쳐들고 나오는 적들도

있었다.

그자들은 나에게 무릎을 끓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한손에는 딸라를, 다른 한손에는 가족사진을 들고 울고불며 노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였다.

그러는 적들을 바라보느라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 세상에 저희만 한 《강적》이 없다고 으시대며 얼마나 많은 우리 인민을 마구 학살하던 침략자들이었던가.

적들의 이런 몰골을 여기서만 본것이 아니였다.

경상남도 하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진행된 전투들에서 미제 침략군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몰골로 나타났다.

나는 전쟁기간 분대장, 소대장으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40만 5 498명에 달하는 미제 침략군들을 비롯한 많은 적들을 살상포로하는데 기여하였다.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사단은 근위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정말 빛나는 그 위훈들은 현대전쟁력사에도, 그 어느 나라 병서에도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나는 확신한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도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할것이라고.

전쟁로병 친윤극

남강마을녀성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는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적위훈과 더불어 별처럼 빛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인민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으며 인민군대를 각 방면으로 적극 원호하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아들이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탄약과 식량을 날마다 주었으며 하루에도 몇번씩 끊어진 수송로를 복구하고 부상병들을 후송하였다.

그들중에는 남강마을인민들도 있었다.

남강마을인민들의 전선원호투쟁은 주체40(1951)년 6월에 이르러 전선이 38°선을 계선으로 기본상 고착된 이후 더 힘차게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강마을인민들은 전선동부의 중요고지들인 월비산, 351고지 등 싸우는 고지들에 총포탄과 식량을 나르고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떨쳐나섰다.

특히 녀성들이 그 앞장에 섰다. 녀성들은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에게 총포탄을 운반하였을뿐 아니라 그들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밥을

지어 고지로 날랐다.

주체40(1951)년 여름 수십년 이래 처음으로 되는 큰 장마로 하여 남강이 불어나 전선수송이 어렵게 되자 남강마을녀성들은 가정의 당반널, 마루널, 문짝, 궤짝, 지어 집기등까지 뽑아 폐를 무어 전선수송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적기가 월새없이 남강의 상공을 맴돌면서 맹폭격을 하는 조건에서 위장을 하고 논밭에 나가 밭갈이, 씨뿌리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을 전투적으로 하여 전시식량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전선으로 통하는 온정령도로공사, 산간우회도로공사에도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본사기자 엄향심



평양시의 일부

주체106(2017)년 2월 촬영

두만강을 건너

(전호에서 계속)

나는 그때 로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장투쟁 문제, 당창건 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 문제도 내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국내에 와서 로동자들에게 카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였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열 사람에게로 번져가고 백사람, 천 사람의 입을 거쳐 만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며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사상이 국내인민들의 신념이 되고 기발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철도공사장 로동자들은 우리의 로선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로선에서 신심을 얻었다면 나는 그 로선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었다.

온성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1930년 10월 1일 두루봉에서 당조직을 무은것이였다.

온성의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중파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각오와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울수 있다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온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무군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이였다. 전장원은 월파동의 조직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가까이에 소발구까지 끌고 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였다.

나는 먼저 회의참가자들에게 카륜에서 채택된 로선을 전달하고 그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파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성지구에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데 대한 온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중성, 전장원, 전창룡, 최춘국, 최봉송, 최근주동무들이 온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책임자로는 오중성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소개하고 간단한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의 결의토론중에서 다른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여도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저미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는 용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란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소박한 말이였지만 솔직한 심정으로였다.

전장원은 그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 같은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한 온성사람들은 당조직을 내오는 혁력적인 회합인데 간소하고 격식이 없으니 허전하다, 형평사 같은 백정들의 조직에서도 발기취지문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세상에 내돌리는데 몇마디 맹세로 회의가 결속되니 너무 슴슴한감이 난다고 하였다.

나는 동무들이 방금 다진 맹세가 몇백페이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있는것이다, 문서장이나 자꾸 만들어서는 뭘하겠는가,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 곳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과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주었다.

온성지구에 당조직이 나온것은 국내에서 당건설의 기초를 축성하는 돌파구로 되었으며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떠밀어 주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온성지구 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륙읍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이 양양 되었다.

대중이 우리를 따르게 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고조되자 이 일대에 와서 자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돌아다니던 최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달아나버리였다. 해방후 그가 그때에 있은 일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실로하였다. 온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엠엘파가 들어간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 우리 세력은 없고 길림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어떻게나 세계들이 불었던지 온통 김일성동지네 판이더란 말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년세가 많은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것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드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갈가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창익이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것은 우리가 종파를 싫어하며 자기네처럼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나는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륙읍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귀로에 올랐다. 나루배를 타고 어정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데 오던 때보다는 마음이 펴그나 가벼웠다. 일이 뜻대로 되고보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것 같은 기분이였다. 사선을 헤치고 모험을 하면서 조국을 찾아온 보람이 있었다.

조국에서 보낸 한주일은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혁명로선이 만민이 접수할수 있는 옳은 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

다. 우리는 조국의 인민들에게서 우리의 로선을 판정받은셈이였다.

그때부터 온성사람들은 줄곧 우리와 운명을 같이하였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오중화의 안내로 대안의 량수천자와 장끌을 거쳐 연길현 조양천에 이르렀다. 조양천은 룽정과 함께 연길지방에서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크게 미치던 곳이였다.

조양천에서는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성원들인 마득한파 라일동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후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림춘추동무도 조양천에서 『봉춘당야방 의사 림춘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사업을 하였다. 연길로 오기 전에는 학생사건으로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고려의사노릇을 하면서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와 각 현사이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조양천에서 처음으로 림춘추동무와 만났다. 내 눈에는 젊은 나이에 고려의술을 터득해낸 그가 펴그나 인상적으로 보이였다. 그의 고려의술때문에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우리 유격대원들이 덕을 많이 입었다.

5. 30폭동과 8. 1폭동은 연길의 혁명조직들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여기는 돈화보다 적들의 테로가 더 심했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위축되고 동요하였고 각성이 부족한 군중은 『공산당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이였다.

나는 마득한, 라일, 림춘추동무를 비롯한 당파 공청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좌경모험주의적책동의 후파를 시급히 청산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가자로 곧추 가지 않고 량수천자를 거쳐 조양천에까지 굳이 들린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리가 벌리게 될 무장투쟁 마당으로 될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였다. 나로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장투쟁에 대처하여 온성과 왕청, 연길에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셈이였다.

그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이 일대는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지로 되였다.

(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사전에 군인은 나라의 상비적인 무장력인 군대의 성원이며 최고사령관은 한 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하는 직무 또는 그 직무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조국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사이에는 단순히 군직관계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적 관계로서 동지적인 정파 사랑이 흐르고 있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외진 섬초소와 산중초소를 가리지 않으시며 찾고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안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성산의 까칠봉초소를 시찰하실 때였다.

그이께서 최전방초소인 까칠봉초소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였을 때 지휘관들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절대로 그곳에 만은 나가실 수 없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지휘관들에게 그이께서는 최고사령관이 최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나가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전차를 초소에로 돌리시였다.

오성산에 올라왔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는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위험해도 꼭 만나보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신 그이이시였다.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리라고, 최고사령관이 동무들

과 늘 함께 있다고 하시며 초소의 병사들을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로 불려주신 그이의 병사들에 대한 이렇듯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무수히 아로새겨져 있다.

무도에는 자신께서 제일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하시며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서

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신 이야기며 위험천만한 판문점을 찾으시여서는 판문점은 오늘 자신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며 초소의 군인들을 철수시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이야기도 있다.

오늘도 어느 한 해군부대에 가면 그이께서 해병들이 장갑을 끼지 않고 항해를 하는데 대하여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해병들에게 좋은 장갑을 공급해주고 꼭 끼도록 할데 대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사실을 들을수 있고 감나무중대에 가면 그이께서 중대를 찾으시였던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사실도 감동깊이 새겨안을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섬방어대군인들의 물문제를 두고 늘 마음쓰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에 바다물정제기실을 꾸려주시고 그리용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해 적아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섬초소에까지 찾아가시였다.

력사는 수많은 군사령관들에 대한 일화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병사들을 위해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펼치

시며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는 그런 최고사령관은 없었다.

찾으시는 초소마다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맘형과 맘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그이.

진정 그이께 있어서 병사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 귀중한 전우들인 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휘관과 병사는 다 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켓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나날 전군에는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동지애에 기초한 혼연일체가 이룩되고 병사들은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투사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결코 현대적인 타격수단들을 갖추고 있어서만 강대한것이 아니라 그이의 병사들에 대한 친아버지 사랑을 자양분으로, 힘의 원천으로 하고있기에 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이 우리 조국과 군대의 진짜 힘이고 최강의 무기이다.

하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날[주체101(2012)년 7월 17일]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 공화국의 70년 -

통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여

1990년대는 조국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는 련이어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사태가 빚어지였다. 하여 조국과 혁명 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제힘으로 끝나가야 하는 시기에 조국인민은 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이라는 커다란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당하게 되였다.

조국인민이 대국상을 당한 후 세계정치계는 조선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며 어느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를 인민들의 심장속에 신념의 구호로 새겨주시였다. 그리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공화국이 나아가야 할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의 가치,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이로 하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는 난관이 조성되고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민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더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전체 인민을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사상과 뜻을 심장으로 받든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면서도 앞장에서 어렵고 긴장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강도가 앞장에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그이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을 새겨안고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원료와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공장을 돌리였고 식량문제도 제힘으로 풀어나갔다.

그이께서는 자강도뿐 아니라 인민경제의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라의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90(2001)년 8월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이곳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현대적기계설비를 기어이 만들어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의 투쟁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군민은 경제건설의 중요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부문 등을 추켜세우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적극 떨쳐나섰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중소형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자연흐름식 관개체계에 의한 대규모의 물길공사가 완공되였으며 전국적범위에서 토지정리가 진행되어 농촌의 땅들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면모를 일신하였다.

한편 축산기지, 양어기지들이 도처에 마련되고 닭공장들과 돼지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으며 경공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도대가 보다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속, 석탄, 철도운수, 화학 등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정상가동함으로써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시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조국의 청년건설자들이 일떠세운 청년영웅도로는 말그대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국의 천만군민의 드높은 애국적열의가 있어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경수

새형의 변압기생산과 확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출기찬 투쟁은 대안전기공장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공장에서는 최근년간 현대적인 변압기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전기설비생산에서 련일 자랑찬 성

과를 이룩하고있다.

선진기술에 의한 새 제품개발과 도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이룩한 공장에서는 대형, 중형, 소형권선기들과 각종 절연재료제작설비, 45°철심절단선, 60kV급 건조로, 진공가열식기름려파기, 10kV-60kV급시험대를 비롯한 변압기생산 및 시험설비들을 충분

히 갖추어놓고 변압기생산을 다그치고있다.

CNC기술이 도입된 자동다이스가공설비로 도선규격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선진기술로 각종 규격의 정밀한 동선을 대량생산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새형의 타원형권선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절연효과를 높이고



45°철심접합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무부하손실과 단락손실을 종전보다 60~70% 감소시켜 에너르기를 절약하고 제품의 성능과 믿음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담보하고있다.

또한 주름외함제작기술과 판형랭각방식으로 외함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랭각효과를 높여 변압기의 수명을 2.5배로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모든 제품들은 각종 시험측정설비들에 의한 직류저항측정, 무부하손실측정, 단락손실측정, 공업주파수에 의한 내압시험,

충격파내압시험, 소음측정 등 엄격한 검사시험을 거치고있다.

생산자들은 언제나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매주 1차씩 진행되는 기술학습에 모두가 빠짐없이 참가하여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별, 기대별에 따르는 기술적 원리들을 더욱 심도있게 파고든 기초우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있다.

하여 철심쌓기, 권선작업, 권선조립작업, 절연물작업 등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변압기의 질을 더욱 담보하고 있다.

현재 전력용변압기, 로용변압기,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변압기부분품, 절연물 등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은 안정성이 좋고 성능이 높아 호평을 받고있다.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해 대안전기공장에서는 앞으로도 대상설비 생산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칠명



영 약개 빨에 모를 봐고

동양고려약공장에서 선조들이 창조한 고려의 학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공장은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최근시기 국내에 흔한 약재를 가지고 효능과 수요가 높은 고려약들이 천연심장교감, 천연소화교감, 천연간장교감 등을 개발생산하여 그 이름이 국내와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고 있다.

약들은 개별적인 질병들의 증상에만 매여 달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못하는 신의학의 화학합성약물과는 달리 해당 인체조직장기들의 호상련 관속에서 막혔던 기혈순환을 열어주어 종합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 고려약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극복하고 적은 량을 쓰면서도 그 치료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것이 특징이다.

천연심장교감만 보아도 약은 놀라울 정도로 퍼순환을 개선시키고 심장뿐아니라 소화기계통을 비롯한 인체의 모든 장기의 기능을 평형화함으로써 병의 근원을 제거해주고 있다.

공장에서 이루어진 이 성과에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있는 지배인 전영란의 역할과 함께 모든 종업원들이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을 끊임없이 배

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간데 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약생산과 함께 새 제품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업반장 김명희는 말하였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약품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처 그 수요를 보장해주지 못할 정도이다. 이에 맞게 우리는 약재보장조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

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이 다 대학졸업생들이지만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하루일이 끝나면 의례히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끊임없이 자기들의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새 제품개발사업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얼마전에도 이곳 작업반성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신약으로써 해결할수 없다던 질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약을 개발하였을뿐 아니라 여러 기능성제품들도 내놓았다.

이런 열의속에 공장에서는 각종 의약품뿐 아니라 천연미안제, 천연팔곡차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기능성제품들도 개발생산하고 있다.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써본 사람들은 그 신비한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

고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전영란은 과학기술에 공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전진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자기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명약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것이라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여을을 날기는 승마애 호가경기

수도 평양에 미림승마구락부가 세워진 후 이곳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승마애호가 경기가 성황리에 열리곤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술협회의 주최로 열리는 승마애호가경기에는 협회회원들과 승마학교 학생들, 애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승마애호경기는 장애물뛰여 넘기, 작은말유희경기, 애호가경마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승마모와 승마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말안장에 오른 선수들의 모습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실내훈련장에서는 장애물뛰여 넘기와 작은말유희경기가 별어지는데 올해 봄철승마애호가 경기의 장애물뛰여 넘기에 출전

한 금성제2중학교 허예경, 작은말유희경기에 나선 대동강구역 사과초급중학교 학생 박세훈이 높은 기교를 보여주어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승마의 첫걸음을 뗀 나아린 선수들이 참가한 작은말유희경기와 유치원어린이들의 말타기 모범출연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애호가들과 관중들 속에서 인기 있는 경기종목인 애호가경마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기마수들이 평시의 승마운동을 통하여 련마해온 자기들의 마술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기운차게 주로를 누비나가면 관람자들 역시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탄성을 올리며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들을 고무해준다.

올해 봄철의 애호가경마에서는 국가과학원 연구사 문혁이 높은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기마수들의 장애물뛰여 넘기 모범출연 역시 관중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경기가 끝나면 미림승마구락부에서는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 있다.

승마애호경기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선민족의 우수한 풍습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언제나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작은말유희경기



장애물뛰여 넘기경기

유치원어린이들의 말타기 모범출연



애호가경마



경기에서 우승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높이 들고 최근 우리 인민들속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동평양제1중학교는 최근년간 졸업생들의 대학입학비율이 그중 높은 학교들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기자는 그 비결을 알고싶어 동평양제1중학교를 찾았다.

책을 펼쳐놓은것만 같은 학교의 마크가 멀리서부터 보여 학교를 쉽게 찾을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림현옥교장은 우리가 학교를 찾은 취지를 듣고는 아직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선물생물표본실이였다.

여기에는 학교가 창립된 주체74(1985)년 9월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동식물표본들이 있었다. 은빛꿩, 꿩, 오소리, 꼼, 노루, 사슴 등 없는것이 없었다.

그것을 보느라니 이곳에서 동식물들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넓혀나가는것과 함께 애국의 마음도

직관교육을 짜고들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간다.



기워갈 학생들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안겨왔다. 이어 우리는 외국어시청각실에 들어섰다. 마침 3학년 3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우리는 그중에서 류달리 외국어발음이 좋고 회화를 류창하게 하는 학생들을 볼수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가리키며 저 학생들이 바로 전국1중학교부문 외국어회화경연에서 1등을 한 유금, 류선희 학생들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축하해주자 그들은 학교에 있는 상식소개판들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

기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외국어시청각실을 나서니 정말 복도에는 빈 공간이 없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 등 모든 학과목들에 대한 상식들과 외국어단어들이 써여있는 판들이 붙어있어 누구나 복도를 걸어가면서 배울수 있고 배운 지식을 다져나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주요약초》, 《사람몸의 구조와 기능》, 《물질의 상태변화》…

소개판뿐이 아니였다.

매 교실들마다 다기능화되어있어 학생들의 수업은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컴퓨터망종합봉사실에서 망을 통해 볼수 있었다.

봉사실에서 만난 부교장은 교원들의 강의를 보면서 참신한것들은 일반화해나간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교수합평회, 강좌별시범출연 등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교원들의 경쟁열의가 한층 고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노력은 알찬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고 이 학교의 안목란, 김애경, 박춘복, 김명순교원들은 10월8일 모범교수자로 되였으며 리선영을 비롯한 교원들은 전국교수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

3학년 6반 원권웅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전국다과목경연, 전국속독경연을 비롯한 여러 경연들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이 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입학비율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림현옥교장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과가 크다는 우리의 말에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기 위해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일신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를 떠나고나갈 인재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최우수득점선수상을 받은 김윤미

상대팀 문앞에서의 대담한 돌입 그리고 윈발과 오른발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을 다루는 솜씨가 마치 축구기술의 우위라기보다 예술적기교의 풍부성으로 보여지는 공격수 김윤미선수의 득점장면,

그의 통쾌한 득점은 언제나 해내외의 많은 축구애호가들의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에 폭발적인 충격을 더해주었다.

공격수로서의 신속한 정황판단과 빠른 이동, 대담하고 위력한 차넣기로 공격결속, 문앞에서 머리받기성공 등 김윤미선수의 장점은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2013년 전승절인 7월 27일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컵경기대회 결승경기에서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득점선수상을 수여받는 김윤미



1위, 2014년 남조선의 인천에서 있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또다시 1위를 하는데 이바지한 그는 2017년 12월 일본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에서 조선녀자축구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최강팀을 결정하는 마당으로서 시작부터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의 실력이 높은데도 있지만 각팀은 지난 기간 여러번 대전하는 과정에 상대팀의 장점과 약점을 물론 개별적 선수들의 특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기준비에 품을 들였던 것이다.

상대팀들에서는 득점명수인 공격수 김윤미에 대한 방어를 보다 강화하였다.

김윤미선수는 중국팀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35분경 중간방어수인 김평화선수가 상대팀의 공을 빼앗아 측면에서 몰고 들어가다가 돌입하면서 넘겨준 공을 16m밖에서 정지하여 상대팀 꼴문대 왼쪽구석으로 멋지게 차넣어 첫꼴을 넣었다.

후반전에서도 이와 같은 결합으로 두번째 꼴을 넣어 2:0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한 김윤미 선수였다.

김윤미선수는 남조선팀과의 경기에서 머리발

국제경기에서 득점하는 김윤미(가운데)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기로 귀중한 한꼴을 넣었으며 일본팀과의 결승 경기에서는 중장거리 19m지점에서 공을 원발로 꼴문대 오른쪽구석에 보기 좋게 차넣었다. 정말 맵시있고 완벽한 기술동작으로 차넣은 통쾌한 꼴이였다.

경기가 끝난 후 동아시아축구련맹에서는 대회 전기간 높은 실력을 발휘하여 팀의 승리에 이바지하였을뿐 아니라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그에게 최우수선수상과 최우수득점선수상을 수여하였다.

수많은 축구애호가들은 김윤미선수의 독특하면서도 멋진 축구기술이 언제부터 련마되었겠는가 하는 호기심도 없지 않다.

그는 9살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평범한 군인가정의 둘째딸로 태여난 김윤미는 어려서부터 예술체조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락랑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한 축구감독이 김윤미의 달리기모습을 보고 반해서 보름동안이나 그의 집에 드나들며 그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인 축구에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축구공과 인연을 맺은 김윤미였지만 그는 영악하게 축구기술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으며 4. 25체육단 축구선수로, 국가종합팀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다. 키가 175cm인 그는 축구경기장에 설 때마다 예술체조경기장에 나선듯한 감을 안고 모든 동작을 민첩하면서도 유연

하게 수행한다고 한다. 손으로 공을 다루는 예술체조선수가 아니라 발로 공을 예술적으로 다루는 축구선수가 되여...

하기에 그의 경기는 번마다 볼맛이 있어 공격수 김윤미선수의 공다루는 모습은 축구애호가들의 기억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지난해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가정의 정서

생활을 사랑하는 조국인민
들속에는 관상용물고기기르기
에 취미를 불인 사람들이 수없
이 늘어나고 있다.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1동
49인민반에는 10여년동안 관
상용물고기를 기르고있는 림명
철가정도 있다.

림명철은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항속의 물고
기들을 바라보면 그날에 쌓였
던 피로가 모두 가셔집니다.
바로 그 맛에 물고기를 기른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라
고 이야기하였다.

림명철과 그의 안해 윤선애
는 신선어, 금붕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관상용물고기를
기르는 과정에 《박사》로 불

리울 정도로 박식가가
되였다.

세대주의 견해에 의
하면 관상용물고기를
잘 기르자면 무엇보다
취미가 있어야 한다는것
이다.

그는 어디에 희귀한
관상용물고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제눈으로 보고 기어코
종자를 구해왔으며 물

고기기르기지식이 모자랄 때
에는 과학기술전당으로 달려
가 기술서적들을 읽군 하였다.

이렇게 날과 달, 해가 흘러
그는 가정에서도 물고기를 파
학적으로 기르기 위한 여러 학
문을 꿰들었으며 그에 따라
각종 관상용물고기들의 생태

학적특성에 맞게 적합한 먹이
와 수질, 물온도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탁구
선수인 딸딸 림윤정과 서성구
역청소년체육학교 배구선수
인 둘째딸 림윤복도 누가 시
키지 않았건만 자라면서 저
도 모르게 관상용물고기기
기에 정을 쏟아붓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 대외경제성 운전수인
림명철의 남다른 정서에 매혹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
정에서 희귀한 관상용물고기들
을 가져다가 정성들여 키운다
고 하니 그들의 말대로 표현한
다면 림명철부부는 《물고기보
급원》이 된셈이다.

안해 윤선애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와 저의 남편은 가까운
앞날에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
민의 문명한 정서생활을 반영
하여 우리 조국에서 관상용물
고기전시회가 열리게 될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예술창조에 바쳐 가는 가정



가극의 형상을 지도하는 피바다가극단
연출실장 채명석(왼쪽에서 세번째)

피바다가극단 연출실장 채명석의 가정은 모두가 예술인들이다.

큰 키에 사람좋은 얼굴,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가진 채명석 실장을 만나보면 누구나 로령한 연출가로서의 품격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주체65(1976)년부터 날마다 전변되는 조국의 벽찬 현실과 자랑찬 모습을 아름다운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는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가극 《해빛을 안고》 등 여러 작품들의 부연출, 연출을 맡아한 능력있는 창작가이다.

그의 연출가로서의 첫걸음은 노래로부터 시작되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나서자라 노래를 잘하여 13살에 평양 음악무용대학(당시)에 무시험으로 입학한 그는 여러 가극에 출연하여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대학 3학년 때에는 영화문학 《은하수》를 창작하여 전국적인 현상으로에서

5대 혁명가극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매예술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함께 참된 인간의 갖춤새를 배웠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언제나 군중에게 배우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것, 이것은 초학도연출가로부터 연출실장이 된 지금까지 그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며 그의 한생의 지론이다.

그는 국가적인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진행되거나 한 국가적인 예술공연들과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비롯한 대공연들 그리고 나이제리아에서 진행된 제7차 아프리카올림픽 경기대회 개폐막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의 공연들에서 총연출을 맡아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후에는 중국의 유명한 작품들인 《홍루몽》과 《량산백파 축영대》를 가극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조중친선의 문화재보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나날 여려번 위대한 령도자

2등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대학에서 미래의 연출가로 점찍히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피바다가극단에서 배우생활을 하다가 인차 연출가로 되었다.

음악적 환상, 문학적 형상, 즉 흥과 순간착상을 결합시킬 줄 아는 그는 인민예술가인 김영희를 비롯한 명연출가들에게서

조선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 출연한 로복실(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정일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연출을 잘했다는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았으며 주체99(2010)년 11월에는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후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된 그는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사람들이 연출가로서 성과를 축하해줄 때면 그는 그 성과를 안해의 공로라고 말하곤 한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배우로 활약한 로복실녀성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각색한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

다》에서 안중근의 안해역으로 부터 시작하여 혁명영화 《백두산》, 《영생》, 예술영화 《금강의 세동서》를 비롯한 50여편의 영화들과 텔레비죤련 속극 《붉은 봉선화》, 《별은 멀리 있어도》 등 여러 작품들에서 개성적인 역형상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는 배우생활로 매우 바쁘지만 남편의 사업을 언제나 미덥게 뒤받침해 주었다.

어떤 때에는 밤이 깊도록 같이 작품의 형상안을 토론하고 연출가인 남편의 요구에 따라 무대 배우역형상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는 나이가 60이 지나 집에

가족과 함께 모란봉에 오른 채명석



늦잠은 사람을 더 피로하게 하고 몸안의 생물시계를 동을 파괴하며 나아가서는 위험한 질병을 초래한다.

① 몸상태의 쇠약

늦잠이 반복되면 심장의 수축력이 약해져 조금만 운동해도 가슴이 활랑거리고 피곤하며 온몸에 맥이 없게 되므로 몸이 쇠약해진다.

② 근육장력의 감퇴

하루밤을 자고난 아침에는 긴장이 풀렸던 근육과 골관절이 활동상태에 놓이게 되며 밤에 근육조직에 쌓였던 대사물질들이 배출된다.

상식

늦잠과 건강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근육조직이 활동하는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하여 깨어난 후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된다.

③ 위치관리기능의 감퇴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제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위치가 꿈틀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래 지속되면 위염이나 궤양을 앓게 된다.

들어왔어도 예술영화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

남편은 안해가 촬영단계에 들어갈 때면 안해의 연기에 부단한 방조를 주며 세부들을 찾 아주고 있다.

가정의 외동딸인 채성혜는 조선인민내무군 너성취주악단에서 안무가로 일하고 있다.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1장 4경 《우리의 총대》를 비롯한 여러 공연들에서 매력있는 중심지휘수로 각광을 받았다.

그는 적지 않은 국가행사들에 자기가 안무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내놓아 처녀안무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체103(2014)년 5월에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는 온 가정이 대표로 참가하여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온 집안이 예술창조를 끌내고 모여앉을 때면 채명석 실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말이 있다.

《오늘이 아니라 먼 앞날에 보아도 손색이 없는 명작을 창작하자. 이것이 시대와 사회앞에 지닌 우리의 의무이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④ 생물시계의 률동파괴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몸안의 생물시계주기가 문란해져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피곤하고 잠에서 깨여나지 못한감을 느낀다.

⑤ 신경계통의 정상기능 방해

늦잠을 자면 수면증추가 오래동안 흥분상태에 놓이게 되고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피로감을 느낀다. 이로 하여 자주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활기가 없어진다.

* * *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료리

개성고려인삼은 조선의 특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개성지방의 특이한 기후풍토에서 자란 인삼이 으뜸가는 보혈강장제로,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천수백년전이었다.

최근에는 인삼을 리용한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성고려인삼특산물상점에서는 개성시를 찾아오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관광객들에게 인삼제품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인삼료리들도 특별히 만들어 봉사하고 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여러 식사실들에서 고유한 인삼향기가 안아온 류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을 비롯한 손님들로 만원을 이룬 식당에서 특이하게 눈에 띠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삼계탕이였다.

큰 그릇에 담긴 삼계탕에서는 더운 김이 물물 피여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손님들은 너무 좋아 눈이 커지더니 그릇채로 국물을 훌훌 불며 마시기부터 하는 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닭고기와 탕그릇에 들어있는 삼을 꺼내서 쌈쌀그레한 맛을 가늠이라도 하듯 천천히 씹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식탁에서는 인삼의 약효를 놓고론쟁하는 축들도 보이였다.

그들의 모습을 일별하고 지배인 량정순과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인삼이라고 하면 사포닌, 아미노산과 펩티드, 미량원소의 긴밀한 호상작용으로 몸안에서 면역, 항암 및 항산화작용 등의 조화로운 약리작용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고급약재로 쓰이거나 화장품생산에 리용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삼의 약리적 효과가 더욱 뚜

렷이 살아나고 민족적 향취가 넘쳐나는 인삼료리들을 새롭게 창안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삼계탕, 인삼정파, 인삼김치, 인삼죽, 인삼약밥, 인삼설기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삼료리들 가운데서 제일 인기가 높은것이 바로 삼계탕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오죽하면 관광안내원들조차 삼계탕을 만들어 봉사하는 식당은 개성시에만도 열손가락에 꼽을만치 많지만 관광객들이 이곳 삼계탕맛을 한번 들이고는 누구나 그 맛과 향기를 잊지 못해 자연히 발길을 이곳으로만 돌린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삼계탕을 만들어 왔다는 주방장 원선희녀성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올해 62살인 그는 삼계탕의 독특한 맛을 살리는 비법은 비단 한두해 사이에 터득한것이 아니

라고 먼저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의 닭을 쓰겠는가, 찹쌀은 얼마만한 시간동안 불구고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가, 인삼과 함께 어떤 재료를 넣어야 약리적 효과가 더 살아나겠는가 하는것뿐만 아니라 삼계탕의 뜰들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원선희녀성의 탐구심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다.

지배인 량정순, 식당책임자 김복희녀성들은 인삼을 민족음식문화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월에 2차씩 음식품평회를 열고 인삼으로 주식류와 당파는 물론 온료리, 랭료리 등을 창안하도록 봉사자들의 창의창 발성을 적극 계발시켜나가고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려는 이곳 봉사자들의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개성고려인삼



개성고려인삼특산물상점의 식사실에서

의 고유한 향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료리는 더욱 특색있게 발전되어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개성고려인삼으로
만든 레시피들의 일부

장선강기슭의 새 모습

얼마전 평안남도 은산군을 찾았던 우리는 장선강을 가로지른 은산다리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주변의 경치와 어울린 장선강의 맑고 푸른 물



재미있는 놀이시간

장선강유원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



우에 뾰르들이 떠있고 강기슭에 있는 정각들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그리고 이 모든 풍치가 결코 자연의 산물만이 아님을 보여주듯 장선강청년발전소의 자태가 우렷이 안겨들었다.

장선강의 은은한 정취에 반한 우리는 강변을 더 자세히 보고싶어 장선강유원지로 향했다.

모란봉 청류벽을 떠올린 듯 한 절벽에는 조선식 합각지붕을 머리에 얹은 정각들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동물조각상들과 해학적인 인물조각상들이 유원지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었다.

정각에 올라 장선강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는 우리에게 한 여성성이 이렇게 말하였다.

『오랜 세월 고독하게 장선강을 하염없이 굽어보기만 하던 이 절벽은 지난 시기 한적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각, 장선루, 청춘정이 일떠서고 훌륭한 유원지까지 펼쳐졌으니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은산읍에서 살고 있는 김창희라고 자기 소개를

한 여성은 알고보니 카나다에서 살고있는 김창준동포의 동생이였다.

우리의 목적을 알고난 그는 반가워하며 오빠에게 고향을 소개하는 일인데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장선강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은산군식료공장부터 찾았다.

공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되는 제품은 파자, 사탕, 강정을 비롯하여 수십가지나 되였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질이 높은 당파류를 생산할수 있게 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꾸리였다. 특히 파자구이로를 현대화하고 사탕생산공정에서 농축, 랭각공정들과 함께 연신기, 성형기 등을 흐름식으로 꾸림으로써 제품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상길은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맛좋은 당파류를 안겨주려는 공장종업원들의 혼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더 잘 꾸려질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계속 울려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이악한 투쟁기풍을 우리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잘 알수 있었다.

후덥게 달아오르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은산군장공장이였다.

책임기사 김성철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

저 들린 곳은 종합조종실이였다.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뗄수 없는 우리에게 그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감시하고 조종한다고 하면서 생산공정전반을 현대화, 컴퓨터화하니로동은 흥겹고 생산능률은 더욱 높아졌다고 신이 나서 말하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종곡정량공급기, 자외선살균기, 된장쁨프, 원료혼합기 등의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더 잘 만들어 종전보다 장의 생산량과 그 질을 훨씬 높이고 있었다.

식료공장과 장공장뿐만이 아니였다.

피복공장, 종이공장, 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우리가 들려본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기술개선의 된바람속에 인민소비품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장선강기슭에 청년체육관과 미래원, 문화회관 등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인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 및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게 하였다.

군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그리고 확신하였다. 창조로 불리는 군인민들의 애국의 열정이 있어 은산군의 래일은 더 아름답고 훌륭해질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기상학발전을 위한 의제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53층짜리 초고층 살림집의 37층 3호에서는 요즘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모른다.

그 집의 세대주는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에서 일하고 있는 고상복(71살) 연구사이다.

그는 낮에는 연구사업을 하고 밤에는 전국의 기상학계 연구사들이 보내온 가치 있는 연구론문들에 대한 심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며칠 전에도 황해남도 황남공업대학 강좌장 박금성이 보내온 논문을 지도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기상학자료들을 파느라 밤을 꼬박 새운 그였다.

수치일기예보의 강수예보 결과에 기초하여 강수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객관적인 예보방법을 세우는 이 논문은 전국의 강수량예보에서 맞춤률을 높이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었다.

고상복 연구사는 이 논문을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하면서 논문의 과학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 신빙성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더 첨부해주었다.

하여 이 논문은 박사론문으로 되었다.

주체60(1971)년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력학부(당시)를 졸업하고 기상수문국 연구사로 배치된 그는 나라의 기상학발전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다.

대기과정의 변화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앞날의 날씨를 정확히 예견해야 하는 기상학은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연구사로 배치받은 첫 날부터 기상학의 법칙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참고서들을 탐독하는 것과 동시에 오랜 연구사들을 찾아가 그들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그의 진지한 탐구적 태도에 감동된 당시 실장이었던 로박사는 그에게 시간에 따라 판촉



고상복

된 자료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할 때 대한 파제를 맡겨주었다.

사실 이것은 초학도에 불과한 그에게 있어서 아름찬 파제였다.

하지만 그는 그 파제를 기어이 해낼 결심을 가지고 지난 기간 관측된 자료들과 외국의 과학기술도서들을 파고들었다. 몇 달동안 그의 발걸음은 도서관으로만 향하였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는 그 연구파제를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었다.

그는 때때로 새로운 연구파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그 해결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았다.

기상학분야에서 컴퓨터에 의한 수치일보체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던 때에는 그 기술을 우리 나라의 기상부문에 연구도입 할 것을 구상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불과 몇

달만에 그에 대한 기초지식을 터득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그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여 기상수문자료종합봉사체계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나라의 기상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가뭄예보 방법을 연구하여 농업부문에서 풍요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였으며 주체77(198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기상수문부문의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컴퓨터에 의한 수치예보에서 위성자료를 리용하는 중규모 관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 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며 국가적인 대회들에 대표로도 참가하였다.

나라에서는 주체104(2015)년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섰을 때에는 새 집도 배정해주었다.

교수 박사인 고상복연구사는 새집들이를 축하해주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56년전 일본에서 나의 소박한 꿈은 비가 새지 않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늘 비가 새는 다락방에 소랭이들을 놓고 지내기가 일쑤였으니 나의 꿈이란 보잘것 없었다. 그러던 나를 조국에서는 한풀에 안아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내세워주었으며 오늘은 또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에서 살도록 조치도 취해주었다. 정말 조국이라는 행복의 체마를 떠나 우리는 순간도 살수 없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휴식일에 가족과 함께



상식

집현전

집현전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름있는 학자들이 모여 저술사업을 하던 학문연구기관이다.

고려시기 처음에는 연영전이라고 하다가 1136년에 집현전으로 고쳤다.

집현전에는 문반관료들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겸임직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대학자, 학자 등의 벼슬이 있었다.

13세기 말-14세기 초에 폐지된 일이 있으며 14세기 중엽에 두 차례의 개편사업이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고려의 집현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크게 확장되어 1420년의 10명으로부터 그 후 정원수가 2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집현전에 소속된 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유교경전을 연구하고 봉건문화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높았다.

집현전은 1456년에 폐지되었는데 후에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이 나왔다.

* * *



중국 흑룡강성 계동현 계립공사 동흥대대 강길남삼촌 앞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삼촌,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조카 강철호가 멀리 조국에서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삼촌어머니와 고모님들도 모두 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삼촌과 고모님들을 만나본지도 근 10년이 되여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세 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고 더욱 강렬해지는것이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인가 봅니다.

이따금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갈 이 떠오르는것이 삼촌과 고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가 중국에서 삼촌과 고모님들과 함께 보낸 나날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며 저의 생활경위를 자세히 들으시던 삼촌과 내 손을 꼭 잡고 저의 모색이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면 눈물을 흘리시던 큰고모,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해주느라 완심을 쓰던 둘째고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는 나를 극진히 위해주는 삼촌과 고모님들의 모습에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한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꼭 꿈을 꾼것만 같습니다.

삼촌, 우리 가정은 다 잘 있습니다.

조국에 돌아온 후 저는 은산군청소년체육학교 축구지도교원으로 임명받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삼촌도 아시다실이 체육경기에서 가장 인기있는 종목은 축구가 아닙니까.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에서는 축구가 대중화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의 또한 여간 높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기술을 배워주고있는 학생들은 10~11살인데 아직 장난기가 세차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이 장차 나라의 축구발전에 기여할 기동감들이라고 생각하니 말은 일이 성수가 납니다. 제가 키운 선수들이 지금은 국가급체육단들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면 훌륭한 선수를 키워낸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으로 이 가슴이 벽차오르군 합니다.

집사람도 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속에서도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식구들보다 먼저 훈련하는 아이들의 영양보충을 해준다면 여간 극성이 아닙니다.

세간을 낸 딸 은하네도 건강해서 맑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창청년탄광에서 탄부로 일하고 있는 사위는 탄광적으로도 로력혁신자로 손꼽히고 있는것 같습니다. 며칠전 딸한테서 소식이 왔댔는데 사위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여 탄광의 일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딸아들과 둘째아들도 그렇고 3년전에 륙해운성체육단 조정선수로 소환된 막내아들도 다 잘 있습니다. 막내아들 평운



이한테서는 전화가 자주 오는데 훈련을 직심스레 해서 앞으로 꼭 조국의 영예를 떨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삼촌, 쓰고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편지에 다 담을수가 없습니다.

끌으로 제가 당부하고싶은것은 삼촌과 고모님들의 건강입니다. 이젠 넌세도 많으신데 건강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삼촌, 고모님들과 다시 상봉하게 될 뜻깊은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쓰겠습니다.

평안남도 은산군 은산읍 204인민반
조카 강철호 올림

—인상기—



고향집뜨락은 넘지 않아도

김칠성단장이 울려오는 저 노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고향 만경대를 그리실 때마다 부르군 하시던 《사향가》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경건한 마음을 안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섰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많던 그 세월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나는 대대로 애국의 뜻을 가桐으로 이어오신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깊게 들었다. 애국의 큰뜻을 품고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고향집을 나서신 주석님께서는 조국을 해방하시고 20년만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시였다고 한다.

그날 할머님께서는 허둥지동뜨락에 내려서시며 낯설은 이

국땅에 부모님들과 삼촌, 동생을 묻고 홀로 고향에 돌아오신 주석님을 품에 안고 오열을 터뜨리시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솟구치는 눈물을 겉잡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이 만경대고향집으로는 애국의 뜻을 이어갈 수천수만의 이 나라 아들딸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혁명의 뜻을 키워가고있다.

만경대고향집의 뜨락은 비록 넘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들어서는 제일 큰 뜨락이다.

나는 만경대고향집뜨락에 섰던 오늘을 잊지 않고 고국과 민족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려고 한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김리라

잊지 못할 무대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 축전에 3번째로 참가하였다.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바이지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그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훌륭한 축전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품들여 준비한 노래와 춤을 무대에 올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환희롭게 경축하고 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높은지 훈련할 때 보면 무대가 빌새가 없었고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며

열심히 편습하였다.

그래서 나도 이번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고국선생님들과 고르고고른 노래 《바다 만풍가》를 내놓았다.

고국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노래여서 그런지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소리도 잘 나왔다. 관중들은 내가 노래를 부르니 서로들 일어나서 춤도 추고 열렬한 박수갈채도 보내주었다.

훌륭한 무대에서 인민들의 환호를 받으니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였고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찌르르 하는것이 느껴졌다.

해외에서 살아도 같은 조선



민족임은 숨길수 없는것 같다.

평생 이 훌륭한 무대와 고국인민들을 잊지 못할것 같다.

나는 앞으로 고국이 더 힘차게 전진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

중국 연변가무단 성악부
부부장 리상길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서

고국방문

정모의 마음 급이치는 곳에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돌아보는 재중동포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계절에 조국을 찾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조국인민들과 함께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린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따뜻이 품에 안아 사랑과 밀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 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동포들은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에 펼쳐진 황홀한 꽃바다와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며 조선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였던가를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한길수동포는 불멸의 꽃축전장에서 한령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흡모하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치였다고 하면서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연회장에서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한 리순남단장은 유치원교실에서 모래다기능칠판의 모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곳에서 공부한 교원들에게 배우게 될 학생들이 부럽다고 하였으며 송영철, 김영옥동포들은 조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교원대학에 있는 모든 교육과학기술성파자료들을 자식들에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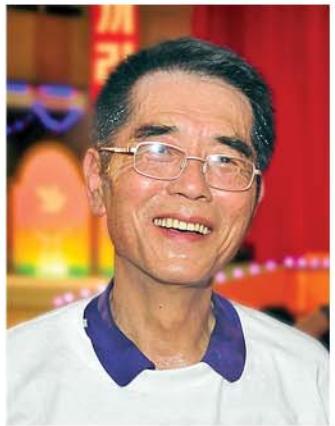
게 가져다주고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성원들은 위인칭송의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고있는 조국의 여리곳을 참관하며 민족의 한 성원이 된 궁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하고 애국사업에 몸바칠 결의들을 다지였다.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았다.

북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겨례의
념원이며 숙원이다.

북인민도 이남국민도 해외동
포도 모두가 통일을 간절히 소
망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소
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부르며
《이 목숨 다 바쳐 통일을 이루
자》고 낌원해왔다.

6. 15공동선언이 세계만방에
선포된 이후에 북남간의 민간
교류는 물론 북남당국간의 교
류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북방
문화수가 부쩍 늘어났다. 뿐달
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았
던 북녘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
람들이 살고있다는 평범한 사
실들도 알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북을 방문
하였지만 북을 제대로 아는 사
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다.

아직도 북에 대해 편견을 버
리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눈
에 띠우기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언론인, 문예
인, 경제인, 학자 등 사회의 지
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중에 북
을 방문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툭하면 미국정치인들
이 노래불러온 《개혁》, 《개
방》을 말하는 경우들도 발견
된다.

그래서 되겠는가. 우리모두
의 소원이 통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통일의 대상인 북
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는것은 당연한 리치가 아니겠
는가.

북을 제대로 안다는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저 북
을 갔다오면 다 안다고 말할수
있는가. 그러면 북을 갔다오지
않으면 북을 모르는것인가.

북을 안다는것은 한마디로
북지도자의 위대성과 동시에
북인민의 위대성을 옳바로 리
해하는것이다.

그것은 북사회가 다른 나라
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성
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북의 지도자들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일제와 미제와 맞
서 싸운 제국주의와의 투쟁경험
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이분들
의 가문이 대대로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왔다는것
도 하나의 리유가 된다.

또 하나의 리유는 힘센 나
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
온 인류사속에서 자기의 고유
성을 지키며 힘의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호혜평등의 국제관계
를 건설하는 일과 자국의 운명
을 자신들이 개척해나갈수 있
는 주체사회주의건설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독창적
인 주체철학리론과 이의 실천

이 지도자의 위력에 의하여 운
영되어왔기때문이다.

그래서 북사회의 가장 두드
러진 특징은 지도자와 인민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친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이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눈물과 환호성으로 소리칠 정
도로 가슴뜨겁게 존경의 마음
을 표시하는 인민들을 가진 나
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북
을 빼고는 찾을길이 없다.

이런 사회가 지도자의 옳바
른 령도없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지배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민족분렬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된 사회를 향하여
지도자와 인민을 따로 갈라놓고
《독재》니, 《자유》니 하
면서 북을 혐孱어왔다.

우리는 북을 알아야 한다.
북사람들은 남녀로소를 막론하
고 민족적 자존심을 가장 내세
우며 지도자(수령)-당-대중(인
민)이 하나라는 사실을, 한마
디로 일심단결된 사회라고 궁
지높게 자랑한다.

우리는 이제 편견의 벽을 허
물고 주체리론이 무엇이며 여
기에 담고있는 수령관이 무엇
을 의미하는것인지도 겸허한
마음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지도자를 바로 알아야 통일
이 보이기때문이다.

《민족통신》대표 로길남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 (1)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음악은 14세기말부터 19세
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창조된 음악을 말한다.

오랜 역사사를 가지고 계승발전하여온 민족음악
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그 종류와 형식이
다양해지고 민족성이 강해졌을뿐아니라 지방적특
색도 뚜렷해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민족음악발전에서 중요한것은
근로대중의 생활속에서 민속음악이 발전한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는 인민대중의 생활감정을 생
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민속가요들이 수많이 창
조보급된 시기이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노래
를 즐겨 불렀으며 그 과정에 애국적이며 민족성
이 강한 우수한 노래유산들을 수많이 창조하여 전
하여왔다. 이 시기에는 앞선 시기의 가요유산들
을 토대로 하여 인민적인 민요들이 더욱 많이 창
조되고 그에 토대하여 민족음악전반이 급속히 발
전하게 되었다.

인민들의 생활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민요
들이 널리 불리워지고 보급되었으며 지방적특색
이 뚜렷해졌다.

이 시기 인민들속에서는 로동생활을 주제로 한
민요들이 널리 불리워졌다. 인민들은 하루로동을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며 생산성과를 높여
나갔으며 노래로 피로를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
군 하였다.

농업과 관련한 민요만 하여도 영농공정에 따라
《씨뿌리는 소리》, 《모내는 소리》, 《김매는
소리》 등으로 다양하였는데 그 곡들은 대단히 흥
겹고 구성지였다.

농업로동뿐아니라 어업, 림업, 토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로동생활속에서도 민요들이 불리워졌으
며 어업로동민요도 대단히 많았다.

이 시기 세태생활을 반영한 민요들이 수많이 불
리워졌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이 담겨진
《자장가》, 남녀간의 사랑을 반영한 《아리랑》,
민속명절의 흥취속에서 흘러나온 《돈돌라리》,
《그네뛰기》 등과 같은 세태민요들은 인민들의
정서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생활을 즐겁게 하였다.

인민들속에서 많이 불리워진 민요로는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내용으로 한 노래들도 있다. 임진조
국전쟁을 계기로 인민들의 애국심을 반영한 《연

줄가》, 《쾌지나 칭칭 나네》, 《강강수월래》와
같은 민요들이 불리워졌으며 반봉건투쟁을 내용으
로 한 노래들도 있었다.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민요들 가운데는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봉건사회의 현실과 봉건통
치배들의 알룩파 부패타락상을 폭로규탄한 참요들
도 많았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앞선 시기의 참요
들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였다. 조선봉건왕
조시기에 창작보급된 참요로서는 통치배들속에서
벌어진 권력다툼을 풍자한 《남산요》, 봉건정부
의 사대매국적인 처사를 풍자한 《구맥요》 등 수
십여편이 있었다.

이렇게 조선봉건왕조시기 인민들속에서는 다양
한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민요들이 수많이 불리워
졌는데 민요는 지방적특징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발전하였다. 평안도민요로는 《수심가》가 유명
하였고 함경도에서는 주로 《돈돌라리》가 성행
하였으며 경기도지방에서는 《권주가》, 남부지
방에서는 《륙자매기》가 널리 불리워졌다.

또한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에 민요의 발전에 토
대하여 민간예술인들의 노래형상수준도 높아짐으
로써 민속가요가 한층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각지의 소리광대들과 사당패
의 공연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각지 소리광대들에 의하여 불리워진 민간의 노
래들을 통털어 잡가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 후
반기 평양, 한성을 비롯한 큰 도시들은 민간예
술인들의 예술활동무대로 되었는데 그들은 《농
부가》, 《방아타령》, 《양산도》, 《도라지타
령》, 《매화타령》과 같은 민요들을 재치있고 흥
겹게 불러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다. 그들의 노래
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민요풍의 선률들을 강한 리
듬적여양을 살린 장단가락에 맞추어 노래하였기 때
문에 누구나 좋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사당패에 의하여 《사거리》
도 공연되었다. 사당패는 각지를 류랑하면서 예술
공연을 한 민간예술인집단이였는데 북, 징, 장고
와 같은 타악기와 피리, 저대, 새납과 같은 판악
기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사들과 춤을 추
는 사당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사 김선영

망경산

북산이 마주보이는 서홍강기
슭 소로지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
고 있었다.

새서방 덕성이는 고래등같은
기와집도 척척 짓고 시집가는 처
녀들의 화장함이나 경대같은 세
공품도 기막히게 잘 만드는 뛰어
난 목수로서 주변에 소문이 자자
한 사람이였다.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자
기의 온갖 지성과 솜씨를 다하여
아담한 경대도 만들어주고 새
살림을 꿔는 안해를 위해 초가삼
간일망정 알뜰살뜰 꾸려놓은 덕
성이의 안해에 대한 사랑은 요
즈음에 와서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안해 역시 하루한시라도 새서
방과 떨어져서는 살수 없을 정도
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에 마
음이 흥그리워서 눈가에는 항상
고운 웃음이 남실거리였다.

꿀같이 달고단 새서방, 새색
시네 생활파는 달리 궁가에서는
요사이 무사분주하기가 이루 헤
아릴수 없었다.

12살 나는 어린 아들을 권모
술수로 임금의 자리에 올려앉힌
대원군은 왕실의 위세를 크게 멸
치려는 목적으로 으리으리한 궁
궐역사를 고안해냈던것이다.

섭정을 하던 대원군은 한양성
안의 목공들만으로는 역사가 너
무도 아름찬지라 온 나라 방방곡
곡에서 목공이란 목공은 다 불러
들이도록 령을 내리였다.

때없이 일어나는 사고와 그야
말로 죽을 고생을 치르면서 전
행되는 세월없는 궁궐역사였기
에 죽거나 병신이 되는 사람 또
한 허다하였고 그로 하여 산간
벽촌의 서툰 목공이라도 이 마

당에 달게 나가길 주저하고있었
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화를 피해 야밤도주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 손에 도끼날을 서슴
없이 박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판인지라 궁궐역사에
동원되는 일부의 수가 점점 줄
어들게 되자 조정에서는 각 고을
들에 이런 령을 내리였다. 즉 이
역사에 동원되는 목공들에게 나
라님의 이름으로 3년만 일하면
집으로 꼭 보내준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물론 량반네들의 새빨
간 거짓말이였지만 덕성이와 그
의 안해는 나라님의 그 무슨 약
속이라는것을 끈이곧대로 믿고
있었다.

덕성이는 떠나던 날 아침 손
목을 놓지 못하고 울며 따라나
서는 안해에게 이렇게 다짐하
였다.

《오늘부터 3년째 되는 날 당
신은 저 북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길을 따라 남쪽만 바라보우.
내가 돌아올 때 북산마루가 보
이는 곳에서부터 목수건을 흔들
겠으니 당신도 수건을 마주 흔들
어주오. 우리 그때 가서 기쁘게
만나자구.》

그 다음날부터 덕성의 안해
윤씨는 서둘러 밥을 지어 남편
이 하루 세끼 사용하던 밥그릇
에 담고 반찬그릇과 함께 무명
보자기에 꾸려 다래끼안에 넣고
북산으로 올랐다.

그리고는 남편이 오게 될 남
쪽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렇듯 매일 아침 한번도 번
짐이 없이 북산으로 올랐다.

날이 갈수록 윤씨는 몸이 여
위어갔다.

그의 되어가는 모양이 하도

애처롭고 불쌍하여 이웃들이 만
류하였다.

하지만 윤씨는 3년동안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드디어 3년째 되는 날이 왔
다. 윤씨는 여느날과 꼭같이 밥
을 지어 다래끼안에 넣고나서 시
집오던 그날처럼 동백기름을 발
라 머리도 꼽게 빗고 얼굴단장
도 품들여 하였으며 장농속에 깊
이 간수해두었던 첫날옷을 꺼내
입고 북산에 올랐다. 하지만 해
가 서쪽하늘가로 기울기 시작했
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윤씨는 한양으로 가보기로 마
음먹었다.

궁성역사장에 도착한 윤씨와
마을녀인은 파수군에게 황해도
서홍에서 올라온 사람 하나 만
나려고 왔다고 말했다. 파수군
은 그의 이름을 묻고는 윤씨와
녀인을 한옆으로 데리고가서 덕
성이란 목공이 한해전에 배가 하
도 고파서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
겨먹다가 그것이 목에 걸려 죽었
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윤씨는 무너지듯 쓰러졌고 다
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서홍 소로지마을사람들은 윤
씨의 시신을 옮겨올 때 남편인
덕성이의 유해도 함께 가져다가
윤씨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북산
마루 그 자리에 함께 묻어주며
백성을 벌레만도 여기지 않는 세
상을 한탄하였다.

이때부터 소로지마을사람들
은 북산을 가리켜 한양 간 남편
을 그리며 애타하던 윤씨의 넋
이 깃들어있다 하여 망경산이라
고 불렀다.

* * *

평안북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8)

- 하비로암 -

평안북도 향산군에는 하비로암도 있습니다.

하비로암은 묘향산 보현사에 속한 작은 절입니다.

하비로암은 묘향산의 원만봉 남쪽기슭, 천태
동과 칠성동의 두 골짜기가 합쳐지는 물목의 언
덕진 곳에 있습니다.

건물은 본전과 보련대, 칠성각, 산신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보련대는 하비로암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높은 대우에 있던 암자인데 주
체4(1915)년 홍수때 무너진것을 옮겨 지은것
입니다.

하비로암이 세워진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17세기의 중 추봉 설암이 쓴 《설암집》의
『묘향산지』와 같은 시기의 화가 김진여의 그
림 《녕변도》에도 있는것으로 보아 17세기
이전 건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비로암현판기》에 의하면
1882년에 개건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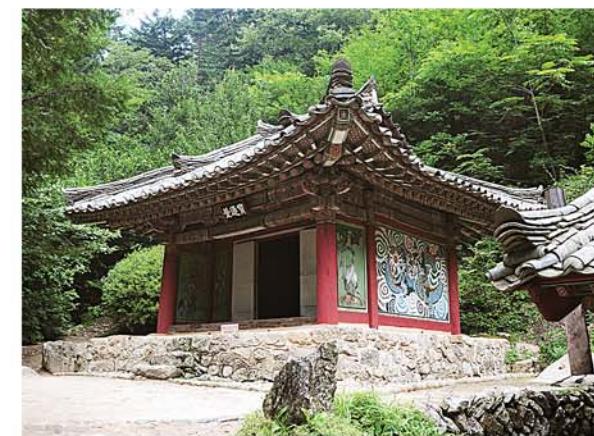
본전은 정면 4간(10.75m), 측면 2간(6.45m)
으로 된 배집입니다.

두공은 정면이 단익공입니다. 처마는 정면은
겹쳐마이고 후면은 흘쳐마로 된 간소한 건물입
니다. 정면의 서북쪽 세 경간은 퇴마루로 되였
는데 8.55m의 긴 액방이 지지기둥이 없이 가
녁기둥과 든든히 맞물려있습니다.

액방우에는 소로를 놓아 장여를 직접 받게 하
고 보머리마다 제공을 불여 소박하게 장식하였
습니다. 보련대는 정면 1간, 측면 2간(앞경간은
퇴마루로 됨)의 규모가 작은 건물입니다. 겹쳐
마합각지붕을 하고 두공은 2익공으로 처리한데
다 판자벽에 다양한 그림들로 장식하여 본전보
다 오히려 화려합니다.

보련대의 건축년대는 명백치 않으나 두공형
식이 하비로암 칠성각의것과 같은것으로 보아
19세기의 건물로 추정됩니다. 하비로암은 묘향
산의 보현사와 함께 국보적건물로 잘 보존관리
되고 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하비로암의 보련대
(↑)와 본전(→)



부채에 비낀 민족정서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가를 스치며 가볍게 불어 오는 바람결에도 반가운 미소를 보낼 정도로 무더운 삼복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맘때가 되면 의례히 부채를 찾곤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생활이 날로 윤택해지고 있는 오늘날 가정과 사무실을 비롯하여 기타 공공장소들에 각

이한 형태의 랭뚱기며 선풍기들이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서늘한 바람을 안겨주고 있지만 어째서 아직도 부채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그러느라니 문득 지난 4월 태양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던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이 만경대 고향집방문기념으로 가져가겠다

민족무용 《부채춤》



부채의 순수한 우리 말에는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자와 가는 대나무 또는 도구라는 뜻인 《채》자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부채는 크게 접는 부채와 자

털부채



고 하면서 털부채를 여러개씩 손에 들고 《지금까지 부채를 많이 보고 애용하여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털부채를 처음 봅니다.》라고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평털로 아름다운 문양을 엮은 부채는 색갈과 형태가 고전미와 현대미가 엇갈려 보기 좋았을뿐 아니라 부채를 리용하는 사람의 인품도 한껏 돋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한여름철 사람들이 즐겨 애용하는 부채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동서고금의 유구한 력사를 거슬러보면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부채도 있습니다.

인민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지난 시기의 우리 나라 부채는 그 형태의 선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색갈과 무늬가 매우 고상하였습니다.

루부채로 나눌수 있으나 부채 살의 재료에 따라 나무부채, 털부채, 대부채, 초물부채로 부르며 부채면의 재료에 따라 비단부채, 종이부채로 그리고 비단과 종이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가지로 부릅니다.

자루부채는 손잡이와 살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접는 부채의 살은 보통 해살모양으로 한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을 가지고 펴지는데 부채 살의 끝점을 이어놓으면 반달모양을 이룹니다. 접는 부채의 사북(부채살이 어긋맺어지는 곳에 꽂는 끈)에는 나무, 옥, 밀화(호박의 한 종류) 등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동식물을 형상한 선추를 매달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부채를 서늘하게 하는데도 써왔지만 그밖에 해빛을 가리우고 먼지바람을 피하거나 권세있는 사람들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도구로도, 의식을 하는데도 리용하였습니다.

고국원왕릉(4세기 중엽 고구려벽화무덤)의 벽화에 부채가 보이는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부채의 력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고려시기에는

《고려지선》을 비롯한 여려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접는 부채가 있었으며 《송선》 등의 자루부채도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기의 접는 부채는 만드는 솜씨도 정교하고 장식도 훌륭한것으로 하여 외국에 널리 알려져있었습니다.

고려 중엽경에 이르러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류행이 시작되었는데 조선봉건왕조말까지 상당히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임금은 전국각지에서 부채를 잘 만드는 선공을 시켜 진상품으로 바치도록 하고 그것이 들어오면 일부를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부채를 받은 신하들은 화가나 명필에게서 그림 또는 글씨를 받거나 시를 적든지 아니면 그냥 백선으로 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부채는 혹시 길거리에서 거북한 상대와 부딪치면 외면하지 않고 자연스레 부채로 얼굴을 가리우기도 하였고 또 시조나 노래를 한곡 하면서 부채로 장단을 맞추거나 펼쳤다 접었다 해가며 풍류와 멋을 즐기였으니 선비들의 호신용, 애용물로도 제격이었습니다.

부채를 소도구로 하여 창작된 민족무용 《부채춤》은 우리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거슬러본 부채 하나를 놓고서도 조선민족의 슬기와 지혜, 생활풍습에 대해 잘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부채를 더 즐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고려청자에 깃든 이야기

고려시기인 961년 초여름 어느 날이였다.

삼포말(오늘의 황해남도 배천군) 자기가마소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향기장네 외아들 왕공탁은 고향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자기가마터를 찾았다.

가마터에 이르니 마침 빛은 자리를 가마에 넣으려던 아버지가 반겨맞아주었다.

허나 그것은 순간이였다. 인차 아버지는 두눈을 지릅뜨고 어찌된거냐고 엄하게 물었다.

공탁은 지난해 정초에 글을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서경의 학사원에 들어갔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얼른 대답을 못하자 글공부가 쉽어 도망쳐왔다고 지레짐작을 했는지 버럭 성을 냈다.

공탁은 서경을 떠나면서 스무번이나 외워두었던 말을 겨우 하였다.

《저… 자기가마를 뜯어고치려고…》

그러자 아버지는 팔을 내저으며 공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길로 고구려때 자리를 구웠다고 하는 막사무꼴로 떠나갔다.

문득 공탁의 눈앞에는 몇해 전 아버지와 자기의 손을 잡고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꼭 박달겨레가 제일 아름답게 여기는 비취색이 령통한 청자기를 만

들어내라는 유언을 남기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공탁에게 왕씨가문에 대한 말을 자장가

처럼 들려주군 하였다.

왕씨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보물자리를 만들려고 애써왔다. 그 보물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인 비취색의 황홀한 빛깔을 띠여야 하고 자색자기보다 더 쇠소리가 나는 굳은 자기여야 했다.

그러나 비색자기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가문이 대를 두고 고심해오는 비색이 령통한 청자기를 만들어내는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었던것이다.

허나 할아버지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몇해전에 운명하고말았다.

이제는 왕씨가문의 소원이 오로지 아버지 한사람의 몸에 실려있었다.

공탁은 한생 비색자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의 수고가 헤아려져 집을 멀리 떠나 서경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병마도감의 철덕(용광로)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쇠물을 녹이며 그들의 일손을 돌던 공탁은 자기가마에서 불칸을 더 크게 해주든가 가마칸을 작게 해주면 불길이 더 세차져서 가마칸에 넣은 자기가 설익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타산했다.

하여 공탁과 그의 친구들은 가마를 뜯어고치는 일을 벌려 놓게 되였다.

공탁은 고열속에서 손발을 데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가마칸에서 나온 공탁은 그 자리에 쓰러지

조국의 천연기념물 (18)

우리 조국의 서부지방의 중부에 있는 황해북도에도 천연기념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황해북도의 입문소나무와 황주련꽃, 신계황목련군락, 구락리자라, 은파해조류화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입문소나무는 황해북도 곡산군 동산리의 정계동 입구에 있으며 다섯그루입니다. 나무들은 400년정도 자랐는데 이곳 사람들이 그 주변을 휴식터로 이용하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고 하여 입문소나무라고 부르게 되였다고 합니다.

다섯그루 가운데서 세그루는 3m를 사이에 두고 북남방향으로 서있고 한그루는 북쪽방향으로 5m정도 떨어져있으며 다른 한그루는 남쪽방향으로 20m정도 되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버섯모양, 우산모양을 하고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자라고 또 크고 오래 자란 것으로 하여 학술적의의가 있고 풍치를 돋구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황주련꽃은 황해북도 황주역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뜻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군락은 주체21(1932)년에 남해지방에서 25그루의 3년생나무모를 가져다가 심은것입니다.

련꽃이 풍치를 더 옥화되어있어 이곳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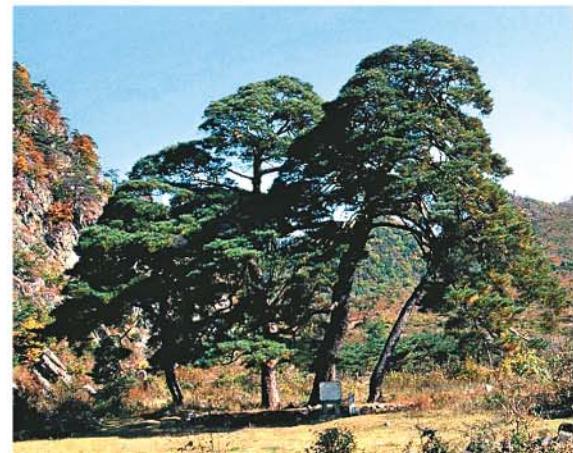
련꽃은 누에고치모양으로 생겼는데 련꽃이 전면을 덮고 있으며 물깊이는 1m정도입니다. 뜻의 바닥은 감탕으로 되어 있어 련꽃의 생육과 번식에 유리합니다.

련꽃의 면적은 약 1.6정보이며 1m²당 련꽃의 포기수는 10~15포기입니다.

신계황목련군락은 황해북도 신계군 은정리의 산중턱에 퍼져있습니다.

군락은 주체21(1932)년에 남해지방에서 25그루의 3년생나무모를 가져다가 심은것입니다.

입문소나무



고말았다.

막사무풀로 갔던 공탁의 아버지는 옛새만에야 마을에 돌아왔다.

마을로인들은 비색이라 할만히 신비로운 광채를 뿐고있는 여러 모양의 그릇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공탁이가 공부를 하면서도 병마도감에 자주 나가 쇠돌을 녹이는 철덕에서 일하며 쇠찌꺼기에서 푸른색이 나는것을 발견하고 쇠돌가루를 섞어 빛으면 자기색같이 좀 달라질것이라는 생각 끝에 가마를 뜯어고쳤더니 이

런 색이 얻어졌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며칠후 공탁이네 부자는 그렇게 바라마지 않던 비색을 찬연히 뿌리는 고려청자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 * *



신계황목련군락

니다. 그후 많은 황목련이 퍼져 면적이 2.5정보로 늘어났습니다.

큰 나무의 높이는 20m이고 뿌리목둘레는 1.3m, 가슴높이둘레가 1.8m(혹처럼 되여), 나무갓너비가 7.8m정도이며

신계황목련군락은 황목련의 생태학적연구와 퍼짐상태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구락리자라는 황해북도 신계군의 구락리, 침교리, 지석리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특히 구락리는 력사적으로 자라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라가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 구락리라는 이름도 생겼다고 합니다.



구락리자라

작은 나무의 높이는 17.5m, 뿌리목둘레는 1.1m, 가슴높이둘레는 1m, 나무갓너비는 4m 정도입니다.

나무의 껍질은 검은 재색이고 매끈하며 재빛흰색의 열룩점이 있습니다.

6월경에 향기로운 누런꽃이 피며 열매는 9월경에 붉은색으로 여릅니다.

구락리자라는 자라의 분포와 생태연구에서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천

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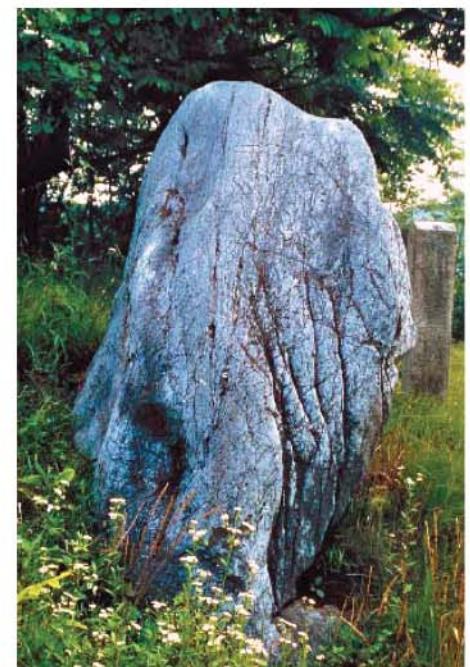
은파해조류화석은 황해북도 은파군에 있는 은파호 서쪽기슭의 낮은 언덕지대에 있습니다. 주체68(1979)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의 지층은 석회암으로 되어있으며 화석층은 너비가 30m, 길이가 50m로 드러나있습니다. 그리고 화석기둥의 직경은 5~10cm이고 높이가 50~60cm이며 큰것은 1~1.5m되는것도 있습니다.

은파해조류화석은 중원생대 시기의 고환경을 세부적으로 연구할수 있는 학술적의의가 큰화석입니다.

김형직사법대학 강좌장 백현성

은파해조류화석



구주성전투와 박서



1231년 고려의 장군 박서가 서북면병마사로 있을 때 외적이 압록강을 건너 철주(철산)를 점령하고 구주성으로 달려들었다.

박서장군은 부근의 여러 고을의 군대들을 모두 구주성에 집결시키고 성을 견결히 방어하였다.

외적이 성을 여려겹으로 포

위하고 거듭 공격해오자 그는 방어군을 서문, 남문, 북문으로 일제히 출동시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궁지에 빠진 적들이 변절자를 성안에 들어보내여 투항을 설교하자 그는 그자를 처단하고 항전을 계속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외적이 약 한달동안이

나 성을 포위하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덤벼들었으나 그때마다 능숙한 전법과 지휘로 이를 물리쳤다.

이렇게 되자 외적은 서북지방의 여러 성을 강점하고 있던 자기들의 군대를 모조리 동원하여 구주성을 공격하여왔다.

적들이 30대의 포차로 성벽 50여 간을 파괴하자 그는 파괴

조선속담 (자고자대)

- 뛰는 놈우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재주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것이니 함부로 우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자신의 옛 처지를 잊어버리고 우쭐대는 짤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미꾸라지국 먹고 룽트림한다

① 변변치 않은 미꾸라지국을 먹고 거드름을 피우

며 큰 트림을 한다는 뜻으로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뽑내는자를 풍자하여 이르는 말.

② 못난것이 잘난체하는 경우를 풍자하여 이르는 말.

- 민총이 쑥대에 올라간듯

보잘것 없는자가 별치 않는짓을 해놓고 잘난듯이 우쭐대는 모양을 비웃어 이르는 말.

* * *

된 성벽을 수리하면서 적의 침공을 물리쳤고 이어 성밖으로 출격하여 적을 무찔렀다.

적들은 최후수단으로 운제(큰 사다리)를 가지고 성벽을 기여 넘으려고 하였다. 이때 그는 큰 칼로 적의 운제를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이렇게 그는 성안의 군민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 끝까지 성을 지켜냈다.

다음해(1232년)에도 박서장군은 완강히 성을 고수하였다. 그의 용감한 투쟁은 구주성을 지켜내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구주성 방어자들이 완강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성을 고수하는 것을 보고 70살에 가까운 적장수는 감탄하여 《나는 젊어서부터 군대에 나와 친하의 성들에 대한 공방전을 무수히 보아왔으나 이처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항복하지 않는 곳은 아직 본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적들은 끝내 구주성을 강점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다.

그후 구주성 방어전투는 성방어전투의 모범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엄향심

부정할수 없는 성노예범죄

세월은 사람들에게 망각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버릴수도 묻어둘수도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죄악이다.

특히 일제의 성노예범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수적인것으로 하여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과거 일제가 조선인 성노예들을 학살한 만행을 립증하는 영상기록편집물이 공개되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있던 이 기록편집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제가 성노

예생활을 하던 조선녀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기록편집물에는 불에 그슬린 시신들이 걸친것 하나 없는 상태로 흙구덩이에 내동

탱이 쳐져있는 처참한 광경이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1944년 9월 13일 일제침략군이 성노예로 끌고다니던 30명의 조선녀성들을 총살한데 대해 기록한 련합군작전일지도 공개되었다.

이로써 일제의 성노예범죄가 다시 한번 명백히 립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는 《군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태적인 론리를 내들고 군대안에 성노예제도를 내왔다. 그에 기초하여 육군성은 일본왕의 승인, 지령밑에 일본군성노예제도를 내오고 관리하였으며 성노예확보와 《위안소》설치를 직접 추진하였다.

군부가 세운 목표에 따라 아시아지역 특히 조선반도에서 너성들에 대한 랍치, 강제련행, 유괴행위가 대대적으로 감행되었다. 일제는 깊은 밤 농

유모아 물건의 값



어머니: 《얘야, 무슨 물건이든지 살 때에는 값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딸: 《예, 어머니!》

어느날 딸이 우표상점에 우표를 사려 갔다.

딸: 《10원짜리 우표 하나에 얼마예요?》

판매원: 《?》

* * *

가를 습격하여 녀인들을 잡아 갔으며 대낮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논밭에서 일하거나 길 가던 여성,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성들 등을 강제로 집짝처럼 걷어싣고 달아나군 하였다. 그들중에는 20살안팎의 처녀들은 물론 애기어머니와 미성년 소녀들도 있었다.

성노예로 끌려간 조선녀성들의 수는 무려 20만명이나 된다. 그 대부분이 일제의 온갖 폭행과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다.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노예들을 저들의 변태적인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동물》로 취급하면서 온갖 비인간적학대를 가하였다.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으로 그들을 살륙하였다. 싸움에서 패했다고 하여 연약한 여성들에게 분풀이를 해대고 동물적욕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야만적으로 살해한 살인악귀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녀성

들이 비명에 죽었다.

패망이 박두하자 일제는 저들의 성노예범죄의 진상이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조선녀성들을 도처에서 집단적으로 총살하고 불태우고 생매장하여 죽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더러운 과거죄악을 덮어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 있다. 성노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설립된 성노예소녀상과 추모비들을 해체하고 비렬하게 놀아대고 있다.

일본의 아베정권은 《일본군의 위안부강제련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다.》느니, 《돈벌이를 위한 자원봉사였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심히 모독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폐당에게 몇푼의 돈을 던져주고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노린 그 무슨 《합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그리고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

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리행을 요구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

유엔녀성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62차회의에서도 일본은 20만명이라는 성노예수자는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려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와 안전에 《기여》했다는 망발을 해대며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려고 책동하였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사죄하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인정하고 사죄와 대가를 치를 대신 오히려 성노예범죄를 정당화하다 못해 나중에는 군국주의부활에 열을 올리면서 재침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일제의 죄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과거에 대한 국가의 성근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일본은 오늘도 래일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절대로 면할수 없으며 수치스러운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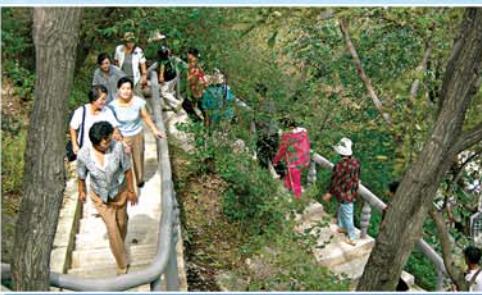
본사기자

새로 공개된 일제의 성노예범죄자료



조선의 판광

평양의 《금강산》을 찾으시라



금강산을 찾았던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그 절묘함과 우아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에도 금강산의 경치 못지 않은 산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통악산입니다. 통악산이라는 이름은 산봉우리가 마치 통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 생긴 것입니다.

통악산은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높이가 292m인 통악산에는 기묘한 바위봉우리가 하늘높이 솟아있고 만발한 온갖 꽃들과 톡읍짙은 숲, 가을의 붉은 단풍 등 모든것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식물들이 펴져있는 산에는 매화노루발풀을 비롯하여 희귀한 식물들과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관리되고 있는 통악산느티나무, 통악산참중나무, 통악산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통악산의 중턱에는 바위짬에서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물이 사철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으며 산기슭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학생소년들의 야영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력사유적들이 법운암, 봉곡서원이 있습니다.

자연의 청신함속에서 평양시의 아름다운 전경과 풍요한 농촌풍경을 다같이 볼 수 있는 통악산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거리의 풍자 본사기자 남진범

묘향산, 금강산의 폭포를 옮겨왔는가,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이채로운 자연풍자가 펼쳐져 오가는 사람들
마저 걸음을 멈춘다.